

동북선 경전철 건설현장 방문,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 안상열 재정관리관, 서울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현장 방문
- 역대 최고 수준의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60.5%)을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 당부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월 12일(수) 서울시 제기동 동북선 경전철(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신속집행 노력을 당부하였다.

동북선 경전철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국토부·서울시의 신속집행 대상 사업이자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왕십리역과 상계역을 잇는 13.4km 길이의 도시철도이다. 이는 지하철 1, 2, 4~7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과 연계 교통망을 형성하여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하면서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27년에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관리를 당부하였다. 더불어 “지자체도 중앙정부와 함께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60.5%)를 설정한 만큼, 신속집행 규모가 큰 서울시의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의 집행은 건설경기와의 직결되는 만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상반기 70% 이상 신속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동북선 경전철 사업과 같은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보조금 우선교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정석철 (044-215-5330)
	재정지출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배민우 (bmw0308@korea.kr)

참 고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

□ 사업개요

사업내용	○ 왕십리역~상계역 구간 도시철도 건설		
총사업비	10,098억원 (’07.1월 불변가)	사업주체	서울시
사업방식	BTO	사업기간	’21년 ~ ’27년
기대효과	○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난 완화 및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		

□ 노선도

